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서 추석 장보세요

광주·전남 올 판매량 작년 20%에 머물러 가맹점 확대도 시급...중기청 구매 캠페인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광주·전남 지역 판매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기업이나 기관·단체들이 경기약화로 매입을 줄인데다 구매자 역시 사용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계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전남중기청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이 올해 1월~7월까지 광주 23억6200만원, 전남 30억 7600만원 등 광주·전남에서 54억 3800만원 어치가 팔렸다.

이 같은 판매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303억7000만원의 20% 수준으로 249억원이 감소한 저조한 수준이다. 광주는 지난해와 같이 총 판매액의 2%대를 유지했지만 전남은 지난해 272억2100만원(전국 판매량의 17%)

팔렸던 것이 241억45000만원이나 떨어지진 30억7600만원(2.5%)에 그쳤다.

이는 올해 여름 폭염과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등 소비 여건의 악화가 요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판매액 감소의 직접적 요인은 상품권 구매의 큰 손이었던 대기업이 예전처럼 나서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측과 함께 구매자가 전통시장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도 적어졌지만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사

람도 막상 사용처인 가맹점을 찾기 어려워 쓰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전통시장별 가맹점 가입률은 지역과 시장별로 각각 차이가 있기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평균 72%, 74%를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 80%대의 이하에 머물러 있다. 수치대로라면 4곳 중 1곳꼴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받은 주부 김모(46)씨는 "전통시장을 찾아 물건을 구매하기는 해야겠는데 사용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답답스럽다"며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해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지금보다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중기청 관계자는 "올 7월 현재 광주·전남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전국 최하권에 머물러 있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에 발 벗고 나서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전남 중기청은 추석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공공기관 등과 함께 광주·전남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 이후 전자상거래 요주의

광주·전남 작년 피해 상담 전년비 12% 늘어

추석을 전후해 호남·제주지역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호남·제주지역의 추석 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1년 587건에서 2012년 659건으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이 27.1%로 두드러진 증가 폭을 보였다.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신발, 가방, 간편복 등 추석 선물과 관련된 '의류·섬유신용품'(232건, 35.2%)이었다. 다음으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인터넷정보이용·온라인게임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109건(16.5%), '식품·기호품' 31건(4.7%)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절,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1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품질·A/S' 100건(15.2%), '부당행위·약관' 85건(12.9%)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은 "추석기간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쇼핑몰을 이용하라"면서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 석달만에 2000선 돌파

외국인 14일간 5조2276억원 어치 순매수

코스피가 3개월여 만에 2,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11일 현재 전 거래일보다 9.79포인트(0.49%) 높은 2,003.8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증가기준으로 2,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5월 31일(2,001.05)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1.90포인트(0.10%) 오른 1,995.96로 출발한 뒤 한때 1,990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부터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결국 장 마감을 10여분 남긴 상황에서 2,000선을 넘어섰고, 마감 동시 호가에 외국인어 약 15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끌어 담으면서 지수가 3포인트 이상 뛰어올랐다.

이날 증시도 외국인이 주도했다.

하루 동안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816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14거래일간 총 5조2276억원 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451억원과 3191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선 차익(1621억원)과 비차익(5104억원) 거래 모두 고른 순매수로 전체적으로 672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 지수는 대부분 상승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6000원(0.43%) 오른 140만2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19포인트(1.18%) 급등한 529.34로 장을 마쳤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장학 광주은행장 '소통 리더십' 당부
김장학 광주은행장이 11일 오전 본점 16층 회의실에서 신임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직원들간의 소통을 통한 지점 경영을 당부했다. (광주은행 제공)

2016년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현행보다 16시간 줄어

이르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루 8시간씩 7일을 통틀어 56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간제 등 일자리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다 민주당 등 야당도 근로시간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

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이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에 12시간이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했다.

상식적으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행뉴스

휴대폰 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갤럭시노트3' 출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11일부터 닷새간 통신 3사를 통해 예약가입을 받는다.

예약가입 고객에게는 23일부터 이틀간 우선 개봉 혜택이 지원된다. 삼성전자는 또 예약가입 신청 및 25일까지 개봉을 완료하고, 10월6일까지 삼성전자 사이트에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 'S뷰 커버'를 증정한다.

'갤럭시노트3'는 5.7형(144.3mm) 풀 HD 슈퍼아몰레드 대화면에 32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적용했으며 기존 모델보다 더 얇아지고 가벼워진 것이 특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내외 150개 업체 국제광산업전시회

10월2일부터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국내외 광산업 분야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3 국제광산업 전시회가 오는 10월2일부터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150개 업체가 참여해 '차세대 광기반 융합사회 구현'을 핵심 주제로 광산업뿐만 아니라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인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의 미래를 조명한다. 또 의료와 조선, 자동차, 농생명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산업과 예술을 접목한 '광-아트' 분야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파키스탄과 카타르지역에서 대규모 LED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유로엔지니어링 및 QKLC社를 초청, 중동과 중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LED조명 보급프로젝트가 선보이고, 해양수산부 함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LED 환만투광등 등 국내외 대규모 LED융합 프로젝트 사업 설명회도 열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 | | |
|----------------------------|---------------------------|------------------------------|------------------------------|
| ▲ 코스피지수 2003.85 (+9.79) | ▲ 코스닥지수 529.34 (+6.19) | ▲ 금리(국고채 3년) 2.94%(-0.03) | ▲ 원·달러 환율 1086.50원(+2.40) |
|----------------------------|---------------------------|------------------------------|------------------------------|

자연산 참옷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옷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참옷 음식 토종 참옷닭 / 옷 청둥오리 / 옷 삼계탕

한방 음식 한방 백숙 / 한방 청둥오리 / 춘담백숙 삼계탕

토종참옷닭 (9부, 식사소포함) **40,000원**

춘담백숙 **38,000원**

옷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옷닭 062)515-5757(옷칠옷칠)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뷰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런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일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일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